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2. No. 5, pp. 62-70, 2022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5.062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권명진[1], 김선애[2*]
[1]대전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2]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youngjin Kwon[1], Sun Ae Kim[2*]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대학생 154명이었으며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x^2-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41.6%로 나타났다(F=66.48, p<.001).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밝혀진 영향요인인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유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대학생, 영향요인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understan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54 university student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to December 10, 2019.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x^2-tes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explanation power was 41.6% (F=66.48, p<.001). When establishing a program that can improv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 psychological well-being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which are factors that affec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revealed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person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ollege students, Influence factor

*Corresponding Author : Sun Ae Kim(sakim@ut.ac.kr)
Received March 16, 2022 Revised May 11, 2022
Accepted May 20,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진로결정은 미래의 개인의 생활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면서 개인 정체성의 핵심이다[1]. 진로결정은 고등학교 시기와 대학생 시기를 통해서 변화되고 결정될 수 있다[2]. 대학생 시기는 직업 선택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성인기로 연결되기 때문에[3] 다른 발달단계보다 직업과 진로결정에 중요한 주체적 시기이다. 이러한 결정에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관련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4].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선택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진로 준비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6].

또한 진로결정 과정은 정서 및 감정이 포함되는 합리적 과정이다[2]. 긍정적인 정서 및 감정은 생각과 행동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7]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성공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이다[8]. 따라서 진로와 정서 및 성격적 요인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진로에 대한 목표와 자신감은 자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가 가능하다[9]. 진로결정이 정서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으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불안과 정체성 혼란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심리적 불안과 같이 안녕하지 못한 상태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11]. 반대로 정서 및 성격 진로문제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정서, 성격적 진로 문제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12] 진로정체성이[13]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전의 정서 및 성격 연구들을 통하여 대학생들의 정서, 성격 진로문제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14]. 또한 진로결정 과정은 단순한 이성적 모델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15], 심리적 문제와 함께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16]. 따라서 진로결정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며 심리적 요인이 진로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요인 중 심리적 안녕감은 대학생들의 학업성취,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는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청소년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18].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우 심리적 안녕감을 갖게 되어[19]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로 확인되었다[20].

한편, 성인기 초기인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생들이 달성해야하는 과제로 대인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나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1]. 대인관계 유능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22], 유능한 대인관계는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인간 행동에서 기본 심리욕구인 유능감이 충족되는 경우 자기 결정성이 증가한다[24]. 그러나 자신감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의 중요요소 중 하나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연구 범위 역시 제한적이다.

선행연구에서 진로자가관리[25], 진로자기효능감[26], 목표지향성[27], 진로준비행동, 역할모델, 진로적응성, 경력 의도, 진로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28-31].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있으나[32] 각각의 요인들이 독립적으로 확인된 연구가 대부분으로 대인관계 유능감과 함께 확인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A시와 B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의료 전공 5개 학과 대학생 154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다중회귀분석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변수 11개로 산출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52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6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54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 변수

2.3.1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은 Ryff [33]가 개발하고 Kim과 Kim [34]이 번역하고 Cho [35]가 재구성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18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의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 [35]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9이었다.

2.3.2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은 Buhrmester 등[22]이 개발한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Han & Lee [36]가 한국대학생에 맞게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31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관계 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의 5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는 .83, Han & Lee [36]의 연구에서는 .88,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 & Betz [4]이 개발하고 단축형으로 수정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Short-Form: CDMSES-SF)를 Lee & Lee [37]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 시킨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 Lee[3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하였다. 전화로 2개 대학 5개 학과 보건의료 계열 학과장에게 사전에 연구내용 및 목적, 설문지 내용 및 설문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았다. 학생들에게 연구내용과 목적, 설문지 내용과 작성법, 익명성과 비밀보장, 참여 중단, 비밀보장을 유지한 자료 보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IBM SPSS 25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x^2-test, t-test 그리고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ffé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변수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6 연구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

설문조사 시행 전 학과장에게 전화로 사전 허락을 구했으며 대상자들이 대학생으로서 연구윤리 적용에서 취약한 대상자임을 고려하였다. 이에 연구 진행 과정 및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발적 참여 동의 및 참여 중단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안내하고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엄수하였다.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코드로 저장되었으며 비밀번호가 설정된 한 대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21.26세이었고, 성별은 여자가 111명(72.1%)으로 많았다. 종교는 '없음'이 118명(76.6%)으로 많았으며, 성격은 '긍정적'이 95명(61.7%)으로 많았다. 생활 만족도는 '만족'이 68명(44.2%), 전공은 '보건의료계열'이 137명(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

제 수준은 '중'이 121명(78.6%)으로 많았으며, 체중 만족도는 '불만족'이 91명(59.1%)으로 '만족' 20명(13.0%)에 비해 많았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 (year)	20-21	93(60.4)	21.26 (1.36)
	22-24	61(39.6)	
Gender	Male	43(27.9)	
	Female	111(72.1)	
Religion	Yes	36(23.4)	
	No	118(76.6)	
Personality	Negative	11(7.1)	
	Moderate	48(31.2)	
	Positive	95(61.7)	
Life satisfaction	Dissatisfied	28(18.2)	
	Moderate	58(37.7)	
	Satisfied	68(44.2)	
Major	Health care	137(89.0)	
	Others	17(11.0)	
Economic level	Low	27(17.5)	
	Medium	121(78.6)	
	High	6(3.9)	
Weight satisfaction	Dissatisfied	91(59.1)	
	Medium	43(27.9)	
	Satisfied	20(13.0)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차이

Table 2와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성별, 성격, 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생활에 만족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변수 간 상관관계

Table 3과 같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r=.59$, $p<.001$), 대인관계 유능성($r=.5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안녕감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양($r=.44$, $p<.001$)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Characteristics	Categorie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D	t/F(*p*) Scheff
Age (year)	20-21	3.53(.48)	-1.67(.098)
	22-24	3.68(.58)	
Gender	Male	3.76(.58)	2.31(.023)
	Female	3.53(.49)	
Religion	Yes	3.64(.49)	-0.68(.496)
	No	3.58(.54)	
Personality	Negative	3.39(.51)	5.35(.006)
	Moderate	3.43(.47)	
	Positive	3.70(.53)	
Life satisfaction	Dissatisfied[a]	3.43(.46)	17.74(<.001) a,b<c
	Moderate[b]	3.37(.46)	
	Satisfied[c]	3.85(.49)	
Major	Health care	3.58(.52)	-0.50(.621)
	Others	3.66(.56)	
Economic level	Low	3.68(.59)	1.53(.219)
	Medium	3.56(.51)	
	High	3.89(.47)	
Weight satisfaction	Dissatisfied	3.56(.48)	0.51(.602)
	Medium	3.62(.58)	
	Satisfied	3.68(.63)	

Table 3. Correlations of Variables (N=154)

Variable	Psychological Well-Being	Interpersonal competence
	r(*p*)	r(*p*)
Psychological Well-Being	1	
Interpersonal competence	.44(<.001)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9(<.001)	.57(<.001)

3.4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요인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독립변수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은 2.16으로 자기상관에 문제가 없었다. tolerance는 .84으로 0.1이상이었으며, Variance Inflation Factor(VIF)는 1.18로 10이하로 나타났다. 특이값 검토를 위해 확인한 Cook's Distance 값도 1.0을 넘기는 것이 없어 회귀식의 모든

가정이 충족되었다. Table 4와 같이 심리적 안녕감(β =.394, p<.001)과 대인관계 유능성(β=.384, p<.001)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설명력은 41.6%로 나타났다(F=66.48, p<.001).

Table 4. Factors affecting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54)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629	.268		2.34	.020
Psychological Well-Being	.370	.058	.394	6.41	<.001
Interpersonal competence	.596	.095	.384	6.25	<.001
adj R^2= .416, F=66.48 p<.001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인 경우, 성격이 긍정적인 경우,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대인관계가 좋은 경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38]. 성별비교에서 남성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39]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남성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이유로 남성의 성격 특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자체가 목표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행동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40]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목표지향적인 남자들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는[39] 전체 대상자 중 여성이 54.5%, 남성이 45.5%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성이 27.9%로 여성 72.1%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으며 선행연구 대상자들은 사회 경상 법학 전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가정계열, 공학, 인문, 예체능, 자연 영역 순으로 전공이 다양하여 본 연구 대상자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여 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서 성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41]. 즉 연구 결과가 연구에 따라 일관되지 않게 보고되었다. 따라서 반복 연구를 통한 추가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심리적 안녕감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유능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에서도[42] 대인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인관계 유능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심리적 자신감을 가지게 하여 자신의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일종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역시 같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태권도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43]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44]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상관관계를 가지며 심리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진로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을 확인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대학생들은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45]. 다양한 심리적 자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심리적 안녕감이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대인관계 유능성이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46]. 따라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 증진 전략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과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임이 밝혀졌다. 선행연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과 타인 간의 갈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었으며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진로 장벽에 대인관계 어려움이 포함되어[47]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므로 대인관계에서의 실패나 좌절의 경험, 혹은 두려움 등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명확성을 낮추어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에서 안녕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

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33]에서 높은 심리적 안녕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행동을 독립적으로 조절하며 주위 환경을 통제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의 정적 상관관계는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부분으로 궁극적으로 두 변인 모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안녕감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로결정 및 진로관련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로결정행동의 향상을 위하여 심리적 특성인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보건의료계열 전공자들은 대부분 전공영역으로 진로결정을 하여 보건의료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 직업의 특성상 다른 보건의료인과 의사소통해야 하며 대상자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대인관계 능력은 필수적인 역량이다 [48]. 선행연구에서도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점수 이상으로 낮지 않으나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환자와 동료들과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다 [49].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역량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대학생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여 긍정적 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일한 맥락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으로 긍정적 진로 지도와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 측면의 특성상 단기간의 프로그램이나 단편적 전략보다는 장기적이고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중재 전략과 대인관계 유능감을 높이는 중재 전략으로 프로그램으로 기획될 때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은 대학생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우선 확인하여 적절한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개 지역 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단독적으로 분석된 변인들을 추가하여 관계를 확인하고 그 중 유의미한 영향요인을 찾아내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진로결정을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직업 및 진로 선택의 여러 시기 중 가장 밀접하면서도 많은 대상자가 연관된 대학생 시기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높여 중요한 진로결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대학의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진로 지도 프로그램과 교수의 진로상담 및 지도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향상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1] M. Boysan & M. Kagan. (2016). Associations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Maladaptive Limitedness Schemas, Sleep Quality, and Circadian Preferences Among Turkish College Students. *A Journal of Clinical Neuroscience and Psychopathology, 18(4)*, 97-110. DOI : 10.5350/Sleep.Hypn.2016.18.0124

[2] F. Farnia, F. M. Nafukho & K. V. Petrides. (2018). Predicting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The role of trait emotional intelligence,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Frontiers in psychology, 9*, 1107. DOI : 10.3389/fpsyg.2018.01107

[3] S. Hwang. (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Solution-Focused Group Art Therapy Program to*

Enha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ocused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4] M. H. Hyun. (2021). *The Effects of Planned Happenstance Skil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5] Y. S. Noh & C. Y. Jyung. (2018).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areer Adaptability, Proactive Personality, Career Exploration Behavior,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8(2),* 55-81.

[6] Y. J. Joo, K. Y. Go & Y. Jung. (2015). The Effects of Positive Affect,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n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Care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8(3),* 65-83.

[7] R. W. Lent, I. Ezeofor, M. A. Morrison, L. T. Penn & G. W. Ireland.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DOI : 10.1016/j.jvb.2015.12.007

[8] S. L. D. Restubog, A. R. Florentino & P. R. J. M. Garcia. (2010). The mediating roles of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decided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textual support and persist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7(2),* 186-195.

[9] J. P. R. M. Garcia, S.D. Restubog, L. S. Toledano, L. R. Tolentino & A. E. Rafferty. (2012). Differential Moderating Effects of Student- and Parent-Rated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Go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0(1),* 22-33.
DOI : 10.1177/1069072711417162

[10] A. Barnir, W. E. Watson & H. M. Hutchins. (2011).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Among Role Models,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and Gende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1(2),* 270-297.

[11] K. H. Jung & C. S. Sung. (2016).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4),* 49-57.

[12] L. Jin, S. K. Nam, G. Joo & E. Yang. (2014). Validation of a Korean translation of the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Difficulties Scale-Short Form (EPCD-SF).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2),* 294-307.
DOI : 10.1177/1069072714535173

[13] S. H. Kim & M. J. Kim. (2016).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407-418.
DOI : 10.14400/JDC.2016.14.4.407

[14] H. K. Song & H. Y. Seon. (2017).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8(1),* 83-96.

[15] T. S. Krieshok, M. D. Black & R. A. McKay.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16] K. R. Kelly & Y. J. Shin. (2009). Relation of neuroticism and negative career thoughts and feelings to lack of inform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201-213.
DOI : 10.1177/1069072708329029

[17] O. H. Lee. (2012). The Influence of Life Stress,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1),* 29-57.

[18] H. W. Jeong. (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of Preliminary Early Childhood Teachers: Mediating Effect of Career Attitudes. *Korean Teacher Education Research, 31(1),* 95-115.
DOI : 10.24211/tjkte.2014.31.1.95

[19] A. Hirschi. (2011). Effect of orientations to happiness on vocational identity achieve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59(4),* 367-378.

[20] Y. J. Kim, K. S. Kim, I. H. Hong. (2020).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9(2)*, 253-262.
DOI : 10.35159/kjss.2020.04.29.2.253

[21] E, Sung & Y. Kim. (2021). The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University Student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through Internalized Sham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nts, 21(11)*, 450-463.
DOI : 10.5392/JKCA.2021.21.11.450

[22]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91-1008.

[23] J. Y. Park. (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24] E. A. Ma & E. J. Son. (2014).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need thwarting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5(2)*, 2035-2051.
DOI : 10.15703/kjc.15.5.201410.2035

[25] B. L. Fredrickson.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 Psychol. 56*, 218-226.
DOI : 10.1037/0003-066X.56.3.218

[26] N. E. Betz & G. Heckett. (2006). Career self efficacy theory : back to the futur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1)*, 3-11.
DOI : 10.1177/1069072705281347

[27] S. Y. Sung & S. A. Bae. (2015).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autonom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daptability.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22(9)*, 277-299.

[28] H. Y. Seon, J. K. Lee & S. K. Ki. (2012). Career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A Conc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2)*, 1-24.

[29] M. J. Kim & B. W. Kim. (2007).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1),* 13-25.

[30] K. Öztemel. (2014). Career indecisiveness of Turkish high school students: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characteristic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2(4)*, 666-681.
DOI : 10.1177/1069072713515630

[31] Z. J. Hou, X. Li, Y. L. Liu & I. Gati. (2016). The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culties questionnaire—Validation of the chinese ver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4(2),* 366-379.
DOI : 10.1177/1069072715580565

[32] H. J. Kim & M. W. Lee. (2014). The Effects of Career Reading Treatment Program on Academic Self-Efficien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for Teens to Overcome Learning Inorganic Power. *Reading Treatment Research, 16(1),* 1-21.

[33] C. D. Ryff.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DOI : 10.1037/0022-3514.57.6.1069

[34] M. S. Kim, H. W. Kim & K. H. Cha. (2001). Analyses on the Construct of Psychological Well-Being (PWB) of Korean Male and Female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5(2)*, 19-39.

[35] Y. J. Cho. (2007). The effects of productive activities and family support on elderly women's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2),* 23-44.

[36] N. R. Han & D. G. Lee. (2010). Validation of 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1),* 137-156.

[37] K. H. Lee & H. J. Lee. (2000). The Effects of Career Self Efficacy in Predicting the Level of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2(1),* 127-136.

[38] J. W. Lee, N. Y. Lee & Y. S. Eo. (2018).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1)*, 311-320..
DOI : 10.5762/KAIS.2018.19.1.311

[39] S. N. Kim & H. W. Jung. (2005).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orientation and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8(2),* 267-284.

[40] J. C. Lee. (2013). Theoretical Study and Comparison Analysis of Research Results 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3(1),* 49-66.

[41] K. H. Jung & C. S. Chang. (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 and Individual Trait on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179-187.
DOI : 10.14400/JDC.2017.15.6.179

[42] T. I. Yoon, K. H. Kim & S. Y. Shin. (2014). The Influences of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s on Middle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Exploratio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7(4),* 167-185.

[43] Y. J. Kim, K. S. Kim & I. H, Hong. (2014).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Taekwondo.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29(2),* 253-262.
DOI : 10.35159/kjss.2020.04.29.2.253

[44] Y. H. Kim, S. K. Yoo & J. S. Lim. (2011).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Orientation and Life-Satisfaction among Korean Female College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2(4),* 161-185.

[45] Y. T. Kim. (2014). Influence of Employment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n Career Decision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778-2788.
DOI : 10.5762/KAIS.2014.15.5.2778

[46] S. Park & S. Yang. (2019).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Unfairness and Empathic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giving Experience in Parentific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6(2),* 107-130.
DOI : 10.15284/kjhd.2019.26.2.107

[47] Y. K. Kim. (2008). The Effect of University Fresh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Decision Marking Levels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4),* 1191-1210.

[48] Y. K. Kwang. (2021).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 competence of Allied Heal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6(8),* 149-156. DOI : 10.9708/jksci.2021.26.08.149

[49] G. J. Na & E. H. Na. (2019). The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ies on the Degree of Campus Life Satisfaction: Major selection in Department Nursing and Health Science Collage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94).* 205-221.
DOI : 10.22251/jlcci.2019.1 9.9.205

권 명 진(Myoungjin Kwon) [정회원]

· 2002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서, 노인, 정신질환, 만성성인질환
· E-Mail : mjkwon@dju.kr

김 선 애(Sun Ae Kim) [정회원]

· 2000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2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중재, 여성, 노인
· E-Mail : sakim@ut.ac.kr